

주일 1-3부 설교노트 / 나눔교재

설교자: 이충경 목사

# 어긋난 경외, 어긋난 예배

왕하 17:25-28, 32-33

1.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주변에 예전에 비해 당연히 인정 받아야 할 권한, 힘, 주권 등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가 나눠 봅시다.
2. 단순한 사고일 수도 있는 사건을 가지고 '하나님 경외'라는 것으로 의미 부여하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?(왕하 17:25-26)
3.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?(요 4:10, 시 96:4-6)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.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폐단을 낳습니까?(왕상 11:31-32)
4. 어긋난 경외는 자신의 예배를 보면 보입니다. 본문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자리인 예배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?
  - 왕하 17:32 "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\_\_\_\_\_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\_\_\_\_\_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"
  - 왕하 17:33 "이와 같이 그들이 \_\_\_\_\_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\_\_\_\_\_ 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"
5.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내게 변화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?

적용하기



# Deviated Fear, Deviated Worship 2 Kings 17:25–28, 32–33

**1.** Please share cases around us where power, strength, and sovereignty that should be recognized but with changing of time, are not recognized as before.

Apply to Life



**2.** How can we apply to our lives the meaning stated in the Bible to 'fear the Lord' even with the smallest of incidents? (2 Kings 17:25-26)

**3.** Why do we need to fear the Lord? (Jo 4:10, Ps 96:4-6) We need to learn the proper way to fear the Lord. If we don't, what could happen and what will that cause? (1 Kings 11:31-32)

**4.** Deviated fear can be seen in ourselves in worship. As you read the passage, what were you like in worship, a place where you should approach with fear of Lord?

- 2 Kings 17:32 "They also feared the Lord and appointed from among themselves

\_\_\_\_\_ as priests of the high places, who sacrificed

\_\_\_\_\_ in the shrines of the high places.

- 2 Kings 17:33 "So they feared the \_\_\_\_\_ but also served their own gods, \_\_\_\_\_ from among whom they had been carried away.

**5.** What do I need to change to worship with fear of Lord and with sincerity?